

中國特色的社會主義建設 研究

金 昭 中

- | | |
|------------------------|----------------------|
| 1. 서론-의미와 유래 | 5.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內容 |
| 2. 마르크스주의 견지 | 6. 개혁중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
| 3. 각국의 구체적인 실제(실천) | 7. 결론-종합과 평가 |
| 4. 중국의 國情-社會主義
初級段階 | |

1. 서론-의미와 유래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등소평을 영수로 한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소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 현실에 기초한 중국고유의 특색있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의미와 유래는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인가, 또 그 전망은 어떠한가를 차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말은 중국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를 견지하고 의거하여,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중국 건국의 30여년간의 역사적인 경험을 총괄하는 한편 새로운 역사조건하에서 부단히 실천하고 반복해서 탐색하여 점차 확정한 사회주의 도로를 건설함을 의미하고 있다.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아국의 구체적인 실재를 결합해서 자신의 길을 가

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기적인 역사적 경험을 총괄해서 얻어낸 기본적인 결론이다”¹⁾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에는 두가지의 뜻이 함유되어 있다. 첫째 그것은 사회주의이고, 둘째는 이 사회주의는 중국특색을 띤다는 말이다.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원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가 학설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고,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다수 국가의 사회주의 건설로 이어지며 또 현재 세계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도 모두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각국의 실체(실천) 및 시대발전과의 결합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① 사회주의 + 중국특색
- ②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원리) 또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공통적인 규율 +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상황(또는 실천)
- ③ 사회주의의 공통적인 규정성 + 중국의 특수한 표현형식
- ④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가 반영한 사물의 보편적인 모순 및 그 발전의 보편적인 규율 +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실천)가 체현한 중국 사회의 특수한 모순 및 그 발전의 특수한 규율
- ⑤ 共性(普遍性) + 個性(特殊性)
- ⑥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관점·방법 + 중국 국내의 상황
- ⑦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원리 + 중국 현대화 건설

이렇게 해서 중국 자신의 방침·정책 등을 제정하여 중국의 특수한 國

1) 〈鄧小平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372.

情에 부합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또한 현재의 중국의 조건하에서 사회생산력을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사용되게 되었나?

먼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는 장기적으로 존재한 '左'傾의 속박을 타파하고 '實事求是'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全黨全國의 공작중심을 사회주의 四個現代化(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에 두었다. 이로써 중국상황에 적합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탐색에 좋은 전제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9년 3월 30일, 덩소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거 민주혁명을 할때 중국상황에 맞게끔 모택동 동지가 개척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길을 걸었다. 현재 건설하는 것도 역시 중국상황에 맞게끔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²⁾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식'이란 말을 처음 사용해서 '중국특색의'이라는 말에 접근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1982년 9월, 중국공산당 제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소평은 드디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아국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합해서 자신의 길을 가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기적인 역사적 경험을 총괄해서 얻어낸 기본적인 결론이다."³⁾ 이처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사상도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7년 10월 25일, 중국공산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의 공작보고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도로를 따라 전진하자'에서 총서기 趙紫陽은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기초위에서 중국국정에 부합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선언하고 있다.

2) 앞의 책, p.149.

3) 앞의 책, p.372.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우리 黨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은 전국 각민족 인민을 영도하고 단결해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자력갱생과 艱苦創業으로 아국을 부강·민주·문명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렇게 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총 목표가 탄생하였다. 즉, 이는 중국공산당이 현단계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는 기본국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마르크스주의인 것이다. 여기에서 4항 기본원칙의 견지(사회주의 도로의 견지, 무산계급독재의 견지, 공산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의 견지)와 개혁·개방의 총방침이라는 이 두가지 ‘기본점’의 견지는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모두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 견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보편적 진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체가 서로 결합한 산물이라고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과학적 사회주의의 보편적 진리(원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언론을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자들의 私人占有를 소멸하고 전체 생산자료 및 노동산품을 公有, 즉 全社會가 共同占有토록 한다. (全民所有制를 말함)
- ② 상품과 화폐의 폐지.
- ③ 사회적 생산은 계획적이고 비율에 맞게 발전시킨다.
- ④ 개인 소비품은 노동시간에 의거 분배한다.
- ⑤ 계급과 계급차별이 사라지고 인민은 사회의 주인이 되며 자유스런 인간이 된다. 전체 사회의 생산은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된다.

4) 1987. 11. 4. <人民日報>.

⑥ 국가가 비록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 진압기능은 이미 사라지고, 단지 노동의 평등과 산품분배의 평등을 보위한다.

이상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산계급혁명이 성공했을 경우의 생각들인 것이다.

⑦ 小農이 우세한 국가와 不發達한 국가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경유할 필요없이 사회주의에 진입할 수 있다.

⑧ 不發達國家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후 사회소유제는 단일적인 全社會占有制가 아니라 兩種의 公有制가 병존하는 국면을 보여주게 된다. 즉 집체화된 合作社도 全社會占有制라 함께 존재한다.

⑨ 兩種公有制의 존재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화폐는 즉시 사라질 수 없고 장기간 존재하게 될 것으로 추론된다.⁵⁾ ⑦~⑨의 사상은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만년의 사상이다.

이상과 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와 불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미래사회에 대한 원칙성의 탐색은 일체국가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떠난다면 사회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자신의 길을 걸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상과 같은 원칙을 이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원칙('진리')의 지도를 받아 중국의 國情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각국의 구체적인 실제(실천)

엥겔스는 말하길 "우리의 이론은 발전의 이론이지, 반드시 잘 외우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教條가 아니다."⁶⁾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사회주의를

5) 孫連成, 梁初鴻, 中國特色的社會主義建設 研究 (權州: 浙江人民出版社, 1987), pp. 4-8.

6) 〈馬克思恩格斯選集〉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5), p.460.

포함)의 건설 및 그 특징들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 만들어진 답은 없다고 했고,⁷⁾ 공산주의 원리의 실제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모두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⁸⁾ 이처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조건때문에, 특히 당시에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후세인에게 공산주의(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인 도로와 방법을 완벽하게 지적해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레닌은 10월혁명을 성공적으로 영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할 때 이렇게 지적할 바 있다. “일체민족은 모두 사회주의로 걸어갈 것이다. 이는 피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체 민족의 걸어가는 방법은 완전히 같을 수만은 없다. 민주의 형식에 있어서나 무산계급독재의 유형에 있어서나 사회생활 각 방면의 사회주의 개조의 속도에 있어서 모든 민족은 각각 자신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⁹⁾ 또한 레닌은 그 이전 1899년에도 ‘우리의 강령’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결코 불변의 것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왜냐하면 그것이 제공하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지도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들의 운용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국에서는 불란서와 다르고, 불란서에서는 독일과 다르며, 독일에서는 또 러시아와 다른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마르크스나 엥겔스 또는 레닌도 자신의 이론은 각국의 구체적인 실제상황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각국의 구체적인 실제의 결합, 이는 어떤 마르크스주의자이든 반드시 지켜야만될 하나의 기본원칙인 것이었다.

그런데 소련이 1917년 인류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1936년 스탈린에 의해 사회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건설됐음이 선포되고 세계의 사회주의 모델이 되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이 모델은

7) 〈馬克思恩格斯全選〉第36卷(北京:人民出版社, 1974), p.419.

8) 〈馬克思恩格斯全選〉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75), p.228.

9) 〈列寧全選〉第23卷(北京:人民出版社, 1961), p.64-65.

10) 〈列寧選集〉第1卷(北京:人民出版社, 1975), p.203.

기타국가의 사회주의 건설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는데 마르크스, 엥겔스의 생각과 공통점도 있고 다른점도 있다.

첫째, 公有化정도가 이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일치될 수는 없어 全民所有制와 集體所有制的 두 종류 公有制 형식이 존재.

둘째, 노동량에 따른 분배가 화폐와 상품교환을 통해서 실현됨으로써 화폐와 상품이 존재.

세째, 사회제도의 건립후 여전히 무산계급독재를 견지하여 국가의 진압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경험은 특히 첫째, 公有制의 건지 둘째, 노동량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관철 세째, 국민경제의 계획화를 실현 네째, 경제건설의 중시 및 생산적 발전에 대한 주의 등에서 기타 국가의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런 모델을 후속 사회주의 국가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소련도 자신의 특수한 역사조건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련은 장기간 제국주의의 포위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건설면에서 시종 중공업 우선 발전을 강조하고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경시했으며 특히 국방공업의 발전에 치중했다. 이 외에도 인민생활 개선의 제약과 희생, 고도의 중앙집중 등 적지않은 약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후에 많은 국가가 사회주의 노선을 취할때 대체로 소련의 발전 모델을 좇음으로써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전세계의 역사적 조건이 변화하고,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역사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1940년대말 유고슬로비아는 소련 모델을 버리고 마르크스주의를 본국의 실제에 맞게 응용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중간이후에는 東歐에서도 본국의 조건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共有하지만 각국의 구체적인 실제상황과 결합함으로써 그 표현형식과 실천방법에 각각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자본주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국 공산당은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와 본국의 구체적인 實際(實踐)를 결합해야 하고, 일체를 實際에서 출발해서 독립적으로 본국 특색의 우월한 점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각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보편적 진리)와 그 실질적인 정신을 깊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엥겔스라 할지라도 100년 후에 부딪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헤아리고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중에 창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실제에 적용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본국의 실제상황을 깊이 연구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의 지도하여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을 배워 본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셋째, 본국의 원래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실천중에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탐색해야만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때, 중국공산당은 처음부터 나름대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재를 결합시키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길을 탐색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중국은 半殖民地·半封建의 낙후한 동방 대국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원리를 운용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할때 서구의 발달된 국가와도 다르고 러시아의 독특한 혁명노선과 건설노선과도 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새로운 길을 탐색하느라 큰 댓가를 치루었던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新民主主義革命 초기에 중국 공산당은 경험이 부족했던 관제로 마르크스

주의를 敎條化하거나 소련의 경험을 神聖視하거나 하여 소련의 도시무장폭동에 의한 정권탈취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중국혁명에 승리가 아니라 극히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毛澤東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右'와 '左'의 기회주의의 착오를 비판하고 중국의 토양위에서 장기간의 탐색과 실천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中國式의 특색있는 革命道路를 찾아내었다. 이 道路는 바로 工農聯盟을 기초로 하고, 土地革命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武裝鬭爭을 주요형식으로 한, 植據地를 기반으로 하고, 농촌이 도시를 包圍해서 점차 全國의 政權을 탈취한다는 道路였던 것이다. 역사는 이미 이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道路는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에서의 勝利이자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에서의 大發展이라 아니할 수 없다.

全國에서 改權을 탈취한 후 생산 자료의 자본주의私有制와 小生産私有制를 어떻게 改造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과제에 봉착하자 1952년 중국공산당中央은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중국의 國情에 근거해서 과도의 總路線이란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바로 상당히 긴 시기내에 점차 국가의 社會主義工業化를 실현하고 농업·수공업·자본주의工商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工商業에 대해서는 加工을 위탁한다거나 생산품을 계획에 의거 주문하며, 통일적으로 구매하든가 판매토록 규제하며, 대리로 팔거나 유통케 하는 것을 위탁하고, 일부의 公私合營에서 전체 기업체에 대한 公私合營등으로의 일련의 저급에서 고급으로의 國家資本主義의 過渡形式을 창조했고,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이 일찌기 생각했던 자산계급에 대한 평화적인 배상정책을 실현했다. 또 개인농업에 대해서는 自願互利·典型示範·국가의 도움 등등의 원칙에 따라 임시적인 互助組와 계속적인 互助組에서부터 시작해서 半社會主義性質의 初級農業生産合作社로 발전시켰으며, 다시 社會主義性質의 高級農業生産合作社로 발전시키는 過渡形式을 창조했다. 또한 개인手工業에 대한 改造도 유사한 방법을 택했다. 이 개조과정중 國家資本主義經濟와 合作經濟는 상당한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1956년까지 전국의 절대 다

수의 地畝는 그 생산자료사유제에 대한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성했다. 이처럼 수억人口에 관계되는 대규모적이고 복잡하기 짝이없는 社會中 보통 피하기 어려운 生産力의 下降을 피했을뿐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경제역량을 크게 증진케 했다.

이후에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에 많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소련의 모델도 중국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끝에 비로소 점차 중국실체에 맞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道路를 찾아내게 되었다. 즉 1956년 毛澤東의 ‘十大關係를 論함’이라는 글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道路’를 탐색한 첫번째 綱領性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 연해공업과 내지공업,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국가·생산단위(집체)·생산자 개인, 중앙과 지방, 한족과 소수민족, 黨과 非黨, 혁명과 반혁명, 是와 非, 중국과 외국등의 十大關係를 논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경제·정치·黨의 領導등 각방면으로부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道路의 要點을 이미 제시한 것이다.¹¹⁾ 그리고 같은 해 개최된 黨의 제8기 전국 대표대회에서는 이 탈색의 성과를 긍정하고, 국내 主要矛盾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했으며, 黨과 국가의 근본임무는 새로운 生産關係下에서 生産力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두종류의 社會矛盾을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해서 일체의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 현대화된 강대국을 건설한다는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라 하겠다. 또한 黨이 경제건설에서 제기한 平衡中 안정적으로 전진한다는 方針이라든지, 건설규모는 반드시 국력과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 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은 반드시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는 사상등은 모두 독특한 시험적인 것이었다.¹²⁾

11) 〈毛澤東選集〉第5卷(北京:人民出版社, 1977), pp.267-288참조.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思想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굴절이 있었다. 즉 1957년에는 '反右'투쟁의 확대화가 발생했고, 1958년에는 左傾의 大躍進과 人民公社化운동이 발생했다. 이 착오의 근본원인은 中國國情을 떠나서 主觀的인 空想에 빠져들고 단기간에 共產主義社會에 진입하려는 과욕에 있었다. 따라서 정치투쟁의 작용을 지나치게 확대했고, 主觀的 能動作用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중국사회주의 경제발전규율에 대한 연구를 등한히 했고, 實查求是와 調查研究의 우량한 전통을 떠났으며, 수많은 댓가를 치루고 건립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중국의 실재를 결합한다는 근본원칙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생산건설에 있어서 그 성과를 너무 급히 구하고, 생산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過渡하고자 했으며, 분배에 있어서는 平均主義를 실시하고, 관리체제는 지나치게 集中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급투쟁과 정치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中心인 경제건설을 대신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左'의 착오는 '文化大革命'으로 발전되어 사회주의 건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는 黨의 思想路線을 가다듬고 마르크스주의 思想路線을 회복했으며, 사상해방·실시구시를 제기하고, 思想·政治·組織·社會主義建設事業등 각방면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나가, 중국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현단계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날로 증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력간의 矛盾임을 다시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다'(以階級鬭爭爲綱)는 시대에 뒤진 구호를 철저히 폐지하고, 黨과 국가의 공작중심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主義現代化建設에 옮겨놓았다.

12) 中共 中央黨校黨史教研室資料組編, 中國共產黨歷史重要會議集(下)(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83), pp. 69-79참조.

4. 중국의 國情—社會主義初級段階

중국공산당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제기한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중국역사경험에 대한 총괄이자, 또한 새로운 역사조건하의 중국 國情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 중국國情은 어떠한가?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사회이며, 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사회주의 경제기초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過渡時期도 아니고, 이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 단계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³⁾

첫째, 경제방면에서 적어도 두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기초가 변변치 않다(底子薄)는 점이다.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의 장기간의 파괴로 중국은 빈궁 낙후한 국가가 되었다. 건국후에 경제건설에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공업도 발전했으며 기술자도 배양되어 농공업이 매년 신속하게 성장하긴 했어도 기초가 변변치 않아 현재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매우 빈국한 국가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도 선진국에게 많이 뒤져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구가 많고 경지가 적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인구는 11억 4천만¹⁴⁾이고 그중 농민이 80%이다. 생산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먹는 문제, 교육, 취업은 모두 엄중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면적은 크지만 경지면적은 대단히 적고 자원은 풍부하나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상황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방면에서 보면, 인민민주專政은 인민에 대해 말할것 같으면

13) 孫連成, 梁初鵬, 앞의 책, pp.14-16.

14) 〈人民日報〉, 1990년 10월 31일자에 의하면, 1990.7.1.의 대륙 인구는 11억 33,682,501명이고, 대만·홍콩·마카오의 인구를 합치면 11억 6천만이 된다고 발표.

바로 사회주의의 민주인 것으로서 공민·농민·지식인·기타 노동자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민주인 것이고, 역사상 가장 광범한 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의 실천방면에서 우리는 과거 좋지않게 행했고 또한 착오를 범한 것이다.……현재 우리는 이미 과거의 착오를 단단히 바로 잡았으며, 또한 각종 조치를 취해 계속 黨內民主와 人民民主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가 없으면 社會主義가 없고, 社會主義現代化도 있을 수 없다.”¹⁵⁾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구중국이 남겨준것은 봉건전제전통이 비교적 많고 민주법제전통이 매우 적은데다 건국후 人民의 民主權利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도 자각적·체계적으로 건립되지않아 法制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 중시되지도 않았다. 특권현상은 어떤때는 제한이나 비평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때는 또 다시 자라났다.¹⁶⁾셋째, 사상문화방면에서, 이미 마르크스주의의 영도적 지위를 확립한 상태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봉건주의사상·자산계급사상¹⁷⁾·식민지 노예사상·소자산계급사상¹⁸⁾·문화와 지식인을 경시하는 사상이 사회생활중 널리 퍼져있다. 鄧小平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국은 백여년의 半封建·半殖民地社會를 겪어서 봉건주의사상이 어떤때는 자본주의사상·식민지 노예사상과 상호 삼투하여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근년에 국제교류가 많아져 외국 자산계급의 부패한 사상기풍과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외국을 숭배하는 현상이 현재 이미 출현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¹⁹⁾ 따라서 사상문화영역에서 이러한 사상의 영향에 반대하는 투쟁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의 대단히 어려운 임무로 보고 있으며 大公無私하고 분투노력하는 혁명정신을 전체인민과 전체 청소년 가운데에 널리 보급해서 중화인민공화

15) 〈鄧小平文選〉, p.154.

16) 앞의 책, p.292.

17) 자산계급의 이익을 위한 사상으로 個人主義·私利追求·利潤과 享樂의 追求,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政治思想·經濟思想을 지칭한다.

18) 소자산계급은 자영농민·수공업주·소지식계층·소상민등이 속하며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되, 자산계급의 영향도 쉽게 받으며 個人主義가 강하다고 본다.

19) 〈鄧小平文選〉, pp.296-297.

국 정신문명의 주요한 支柱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²⁰⁾

이상과 같은 상태이므로 중국이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가 되자면 아직도 상당히 긴 시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1950년대 생산자료 私有制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때부터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적어도 100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이 모두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특징은 첫째, 점차 빈궁과 낙후를 벗어나는 단계이고 둘째, 농업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수공업노동을 기초로 하는 농업국이 점차 비농업인구가 다수를 점하는 현대화된 공업국으로 변하는 단계이며 셋째, 자연경제·半자연경제가 매우 큰 비중을 점하는 데에서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로 변하며 넷째, 개혁과 탐색을 통해 활력이 충만한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체제를 건립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이고 다섯째, 전체인민이 분기하고 노력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단계인 것이다.²¹⁾

그러면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기초로 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주의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5.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內容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의 사물은 천차만별하고 각국의 상황도 같지 않다. 매 국가마다 모두 자신의 경제·정치·사상·문화·민족·역사의 전통과 자연生態환경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를 각국의 혁명과 건설에 운용할때 결코 기계적으로, 교조주의적으로 맞추어서는 안되고 오직 각국의 國情에서 출발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각국의 구체적인 실재를 결합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

20) 앞의 책, p.327.

21) 中國毛澤東思想理論與實踐研究會理事會論, 毛澤東思想辭典(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0), p.250참조.

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道路는 바로 鄧小平을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조건하에서 성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원리와 중국현대화 건설을 결합한 것이며, 毛澤東思想의 성과를 견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道路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인 것이다. 이 道路의 주요특징은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을 中心으로 하고, 두개의 기본점(4항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의 총방침)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道路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富強하고 정치적으로 民主의이며 정신적으로 文明된, 현대화된 사회주의 強國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道路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이래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실제(실천)를 결합한 일대 '飛躍'인 것이다.

그러면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는 어떻게 건설하자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경제·정치·문화·사상등 각 방면을 광범하게 포괄하고 있다.

1) 黨의 工作重點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두어, 사회생산력 발전을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근본적인 임무로 한다.

사회주의 改造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후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모순은 인민의 날로 증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社會生産間의 모순이었다. 따라서 黨과 국가는 工作重點을 반드시 경제건설을 中心으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에 두어서 生産力을 발전시키고 또 이를 기초로 해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전에 범한 착오는 이 전략적인 전환을 하지않은데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금후에는 대규모의 외적 침입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 重點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黨의 모든 工作은 이 경제건설에 복무하고, 간부들 특히 경제부문의 간부들은 경제이론이라든지 경제관리 및

과학기술의 학습에 노력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생산력에 있어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높고 빠르는데 있다고 주장하느니 만큼 사회주의는 마땅히 빈궁을 소멸해야 하며 빈궁이 사회주의의 징표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더구나 공산주의의 징표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바로 생산력을 점차 발전시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느냐가 문제이다.²²⁾ 이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1기 3중전회 이후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를 탐색해왔다. 결국은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중국의 경제를 점차 발전시켜야만 한다. 제1보는 본세기말에 小康수준에 도달해야 한다.”²³⁾ 이 20년간에 실재를 벗어나 너무 높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 국민총생산액을 4배 실현토록 한다. 인구증가의 인소를 포함해서 매 1인당 연간소득을 250달러에서 800-1,000달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자는 것이다. 이 수준은 발달된 국가의 수준에서 본다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국측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수준인 것이다. 즉 依·食·住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위 小康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 다시 50년을 노력하면 현재의 중등 발달된 국가의 수준(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2보’의 목표인 것이다.²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분야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고 또 ‘개방’이 필요하며 또한 ‘4항 기본원칙’의 견지가 필요한 것이다.

2) 價值規律을 자각적으로 운용해서 사회주의의 계획적인 상품경제를 크게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22)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增訂本)(北京:人民出版社, 1987), pp. 51-56 참조.

23) 孫連成, 梁初鴻, 앞의 책, p.17에서 재인용.

24) 孫連成, 梁初鴻, 앞의 책, p.17 참조; 金羽, 陳先奎等, 黨代中國大思路—鄧小平의 理論與實踐(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pp.152-153 참조.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자료公有制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이며, 동시에 생산자료公有制를 기초로 한 商品經濟로서, 양자가 통일되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반드시 자각적으로 가치규율에 의거하고 운용해야 하는, 생산자료公有制 기초위의 계획적 商品經濟인 것이다. 商品經濟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인 것이며, 중국경제를 현대화 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半封建·半殖民地社會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商品經濟의 長足の 발전을 거치지 않아 기본적으로 아직도 半封建狀態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상품경제를 충분히 크게 발전시켜야만 경제가 활기차게 되고 각개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경영에 탄력성이 생겨 복잡한 사회의 수요에 민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주의 상품경제가 광범하게 충분히 발전하다 보면 모종의 맹목성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계획적인 지도와 조절 및 행정관리하에 이를 최소한도로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²⁵⁾

3) 생산자료 公有制를 主導의 地位에 두고, 동시에 여러종류의 所有制 경제형식을 발전시킨다.

생산자료 公有制는 사회주의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 全民所有制 經濟는 전체 국민경제 가운데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다. 全民所有制 經濟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군중의 集體所有制 經濟를 사회주의 방향으로 전진토록 보장하며, 또한 個體經濟와 國家資本主義經濟 및 기타 所有制經濟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케 하는 결정적인 條件이 되고 있다. 중국의 생산력 발전수준은 아직 비교적 낮고 또 각 지방에 따라 不平衡하기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 多種의 所有制形式의 同時併存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公有制經濟의 공고와 발전은 결

25) 丁頌彥等主編, 中國特色社會主義概論(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88), pp. 163-184 참조.

코 기타 所有制形式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발전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타 소유제형식의 발전은 사회생산을 발전시키고, 선진기술을 들여오며, 인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노동취업 확대등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 경제에 필요한 유익한 '補充'이 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어서 당연히 크게 발전시켜야 하며, 법률로 보호해야만 한다. 아무튼 公有制의 전지를 主導의 地位에 두고, 적극적으로 多種 所有制形式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인 方針이다. 이러한 종류의 발전은 사회주의 經濟制度를 결코 동요시킬 수는 없으며 단지가 經濟制度의 공고와 발전에 유리한 것이다.²⁶⁾

4) 여러형식의 경제책임제를 건립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관철한다.

사회생산력이 비교적 낮고 또 매우 不平等해서 所有制形式은 다양하다. 따라서 개인 소비품의 분배는 여러 층차가 있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시와 생산 책임제를 위주로 한 여러 종류의 경제 책임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책임제는 平均主義的 분배 경향을 타파하고 있으며, 기업 직공의 봉급 및 상여금은 기업의 경제 수익성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내부에서는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상벌에 따른 장려금제도를 충분히 체현해서 많이 일하면 많이 얻고 적게 일하면 적게 얻으며,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별, 복잡노동과 단순노동의 차별,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간의 차별을 충분히 체현한다. 먼저 부유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장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고무가 되게끔 하고 나아가 더욱 더 많은 사람이 共同으로 富裕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농촌이나 도시에서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기업에서 먼저 부유해지도록 장려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物質利益 原則을 기초로 한 책임제를 실시한지 몇년이 안되어 농촌과 도시에서는 놀랄만한 변화를 보였고 정제되

26) 丁麟彥等主編, 앞의 책, pp.213-220 참조.

어 있던 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이렇게 일부분을 먼저 부유하게 한다는 원칙은 10억인구의 平均主義의 分配體制를 깨뜨려 버리게 되었고 그들의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가능케 했으며 사회생산이 신속히 발전했다. 그리고 분배체제의 변화는 소유체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진후 그들의 수중에 있는 자금은 필연적으로 재생산에 투입되고 이 부분에 대한 所有權이 제기된다. 따라서 원래의 단일적인 公有制體制는 타파되고 個體經濟(또는私營經濟)가 허락되며 심지어는 資本主義經濟마저도 허락된다. 이렇게 해서 所有制를 主體로 한 多元化된 所有制體制가 형성되고, 이 所有制의 변화는 다시 分配體制의 전일보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의 수입은 노동에 따른 수입이외에 이익배당수입·위험부담수입등이 있게 되고, 노동에 따른 분배 위주의 多種形式의 分配體制가 형성된다. 이처럼 公有制를 主體로한 多種所有制體制와 노동에 따른 분배를 主로한 多種分配體制는 계획 상품경제의 발전을 위해 길을 닦아놓게 된다. 이런 새로운 경제체제는 실질적으로 물질이익원칙의 표현이며 전개이다. 아무튼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고,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경로를 통해 공동부유에 도달하고, 일정한 정도의 수입차별을 통해 최종적으로 無差別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국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정책이요 원칙이다.²⁷⁾

5) 독립자주·자력갱생의 기초위에서 對外開放을 하자.

獨立自主·自力更生은 고립주의나 쇄국주의를 의미하거나 타국과의 경제기술 교류를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외교류를 확대하여 세계의 문명을 흡수하고 선진적 경험을 잘 배워야 효과적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獨立自主·自力更生の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自力更生을 순전히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잘

27) 全羽, 陳先奎等, 앞의책, pp.161-163 참조.

못 이해하여 국제간의 각종 경제·기술등의 교류와 분업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을 굳게 닫음으로써 중국을 장기간 정체와 낙후에 떨어지게 했다. 현재 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자기 일국의 역량에만 의존해서 고도의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현재 세계는 개방 세계이며 국제간의 경제관계는 날로 밀접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져 새로운 기술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민족·일국간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생산·교환·소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신을 세계속에 놓고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훨씬 더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78년 이후 獨立自主·自力更生을 對外開放과 對立시켰던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고 獨立自主·自力更生과 對外開放을 統一시키고 있다. 즉 주로 자신에 의존하는 자력갱생을 견지하는 동시에 對外經濟開放을 통해 외국의 자금·기술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對外開放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경험을 총괄해 보건데 중국이 장기간 정체와 낙후상태에 처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문을 닫고 건설을 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²⁸⁾ “오직 대외개방정책을 실행하고, 자금을 포함해서 세계의 선진과학기술과 경험을 흡수해야만 비로소 중국의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다.”²⁹⁾ 1981년 趙紫陽은 제5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외개방정책을 실행하고, 국제경제기술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이다. 아국의 4개현대화건설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³⁰⁾

그러면 대외개방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자력갱생과 平等互利的 원칙을 견지하고 둘째, 전면개방의 원칙을 견지한다. 즉 사회주의 현대

28)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增訂本), p.68.

29) 〈人民日報〉, 1987년 3월 20일.

30) 〈三中全會的來重要文獻選編〉下, p.1427, 丁禎產等主編, 앞의 책, p.154에서 재인용.

화 건설에 유리하기만 하면 모든 국가와의 경제기술교류와 합작을 적극 발전시킨다. 세째, 4항 기본원칙을 실행하여 사회주의 방향을 따라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외개방정책을 집행하고 외국의 기술을 학습하며 外交를 이용하는데, 이는 단지 사회주의 건설의 한 보충일 뿐이며, 사회주의道路를 떠날수는 없는 것이다”³¹⁾ 라고 鄧小平은 강조하고 있다. 만약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대외개방은 정확한 방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네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침투를 막고, 서양의 것이라면 숭배하고 좋아하는 의식이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개방의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중국의 對外開放은 對外貿易・對外資金交流・對外技術交流・對外勞務協力・觀光事業・經濟特區開設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對外貿易. 중국은 서방국가, 소련, 동유럽국가 및 발전도상국가들과 ‘平等互惠’의 원칙하에 경제관계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180여개의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대외무역 총액은 1978년의 206억달러에서 1988년에는 1,208억달러로 10년간에 5배가 증가되었다. 수출상품구조에서는 농산품등 초급산품의 비중이 저하되었고, 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올랐다. 수입상품구조에서도 선진기술과 주요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고되었다.³²⁾ 이처럼 대외무역의 증가와 수출입상품 구조의 변화는 중국 국민경제 발전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對外開放을 추진하기위한 중요한 조치로는 우선 外交貿易體制的改革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①대외무역 경영권의 ‘下放’, ②대외 무역에 직접 관련되는 기업의 경영 自主權 확대, ③수출상품의 계획에서 指導性 범위의 확대와 指令性 범위의 축소, ④多種形式的工業貿易・技術

31) 鄧小平, 앞의책, p.151.

32) <1988中國經濟年鑑>(北京:經濟出版社, 1988) pp.Ⅳ3-5, V242-254 참조; 壇國大學校中國問題研究所, 中國, 제15호(1990.12), p.30 참조.

貿易등의 시험적인 방식의 채택이다.³³⁾

둘째, 外國資金의 이용. 외자도입, 특히 서방국가의 자본을 흡수하여 國內建設에 이용하는 것은 대외개방 정책에 있어 중대한 관건이다. 1979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이 제정된 이래 외국기업과의 合資경영·合作경영·외국기업의 獨資경영企業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 1979-1988년까지 외국자금을 흡수한 총액은 약 760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약 60%인 460억 달러가 차관이며 나머지는 상기의 '三資企業'의 투자이다. 차관은 외국정부·국제금융조직·상업은행등으로부터 얻어진다. 직접투자 계약전수는 1979-1988년까지 16,000건이나 된다.³⁴⁾

세째, 技術도입. 1980-1988년에 3,500여건의 외국선진기술이 도입되었고 그 가치는 188억달러에 이른다. 기존의 중국기업을 개조하기 위한 선진기술과 설비도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품의 기술수준향상, 자주적 개발능력 강화,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 신흥공업의 발전, 경제성장의 촉진, 관리수준 향상등을 가져오고 있다. 기술도입으로는 ①전매권과 기타 工業產權의 전이 ②선진설비와 부품도입 ③新型자재 도입 ④공예과정·원리·생산관리방법 ⑤技術서비스등이다.

네째, 관광사업. 1987년에만 중국방문객이 2,690만명으로 1986년보다 17.9%증가했고 수입은 18.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³⁵⁾

다섯째, 經濟特區의 개설과 沿海항구도시 및 地域의 開放.

경제특구는 대외개방정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대외 경제기술합작과 교류 및 外向型경제를 발전시키는 형식이다. 경제특구란 市場經濟를 위주로하고 대외 경제활동에서 더욱 개방정책등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特殊한 경제정책과 경제체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지칭한다. 경제특구의 개설은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

33) 檀國大學校中國問題研究所, 앞의 책, p.31 참조.

34) <1989 中國外外經濟貿易年鑑>, 檀國大學校中國問題研究所, 앞의 책, p.34에서 재인용.

35) <1988 中國經濟年鑑>, pp. V242-254 참조.

데, 自由港·自由貿易區·加工區·自由區·수출加工工業區등으로도 불리운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鄧小平은 이 경제특구를 기술·관리·지식·대외정책의 ‘窗口’라고도 했다.³⁶⁾ 1979년 대외개방의 基本國策을 확립한 이후 몇단계에 거친 조치를 취했다. 제1보는 1979년 廣東省·福建省에 대해 特殊한 政策을 실시하고, 또 深圳·珠海·汕頭·廈門등 4개의 經濟特區를 건립했다. 제2보는 1984년 大連등 14개의 沿海都市를 개방했고, 제3보는 1985년 長江·珠江三角洲와 閩南三角地帶를 개방했다. 또한 1987년 전국 최대의, 가장 특수한 經濟特區 一海南省을 만들어 기타 경제특구보다 훨씬더 개방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동부 연해에 南에서 北에 이르는 開放沿海地區를 형성했으며, 따라서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연해경제개방구→內地’로 발전해가는 개방체제를 형성했다.³⁷⁾ 이는 전국의 改革·開放을 활성화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鄧小平은 1987년초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이 집행하는 개방정책은 정확한 것이다. 대단히 큰 좋은 결과를 얻었다. 만일 무슨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한다면 개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방해야 하고 더욱 개방해야 한다.”³⁸⁾ 중국공산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外交開放의 넓이와 깊이를 진일보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1988년 4월 國務院은 沿海經濟開放特區의 범위를 진일보 확대했는데 이때 새로이 들어간 것으로는 天津市를 포함하여 140여개의 市와 縣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경제개방구로 구성되는 전체 연해개방지대에 288개의 市와 縣이 포함되어 크게 확대되었고 1억6천만의 인구와 32만km²를 포괄하게 되었다.³⁹⁾

36) 鄧小平, 앞의 책, p.41.

37) 丁禎彥, 앞의 책, p.160 참조.

38) 鄧小平, 앞의 책, p.160.

39) 丁禎彥等主編, 앞의 책, p.162 참조.

6) 인구증가의 억제

근 1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계획적인 산아제한을 하여 인구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 1.3%—1.4%를 유지하고 있다. 한가정에 아이 하나를 기를 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잘 관철이 되지않고 있다.

7) 마르크스주의를 지도로 하는 사회주의 精神文明의 건설

社會文明은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思想文化建設을 중시해야 하고 思想文化 발전이 사회주의 건설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논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제11기 3중전회 이래 사회주의 물질문명의 신속한 발전은 그와 상응하는 정신문명의 건설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胡耀邦은 黨 제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물질문명의 건설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없어서는 안될 기초이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은 물질문명의 건설에 대해 거대한 추동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정확한 발전방향을 보증하고 있다. 두 문명의 건설은 서로 조건이 되고 또 서로 목적이 되고 있다.”⁴⁰⁾고 말하여 정신문명의 물질문명 건설에서의 중요한 작용과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정신문명은 교육·과학·문화지식의 발달과 사상·정치·도덕 수준의 제고로 표현되는데, 사회주의 정신문명은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이론·공산주의 이상·신념·도덕·애국주의·국제주의 등의 사상건설을 통해 새로운 인간이 되고, 보수주의·봉건주의·자본주의의 분위기와 사상을 극복자하는데 있다.

8) 고도의 社會主義民主政治制度 건설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모두 사회주의 民主를 계속 발전시킴

40) 吳振坤·臧志風, 三中全會以來我國社會主義經濟建設的基本方針和政策(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84), p.96에서 재인용.

으로써 보증된다. 사회주의 민주는 정치생활·경제생활·문화생활·사회생활의 각 방면에 확대시켜야 하고, 각 기업단위의 민주적인 관리와 기층 사회생활의 群衆自治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는 반드시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政治制度인 人民代表大會制度·人民政治協商會議制度·黨政職能分離의 領導體制·群衆의 監督을 기초로 한 幹部制度등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9)民族區域自治를 실시하고 民族團結을 강화

민족구역의 自治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문제 이론에 근거해서 중국의 실정에 맞게 하려하고 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漢族(전체인구의 93.3%)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주거하는 지방에서 민족구역 자치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각 민족간의 平等·團結·互助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발전시켜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볼때, 민족구역 자치의 기본정책을 점차 法制化해서 소수민족의 自主權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문화·풍속을 보호·발전시키며, 민족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지구의 4개현대화의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다.⁴¹⁾

10)애국통일전선을 확대하고 일체 적극적 요소를 동원

통일전선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 승리의 ‘三大法寶’중의 하나이다.⁴²⁾ 사회주의 건설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공산당은 각 민주당파·무당파·소수민족·종교계 애국인사등과의 合作을 강화하고 ‘長期共有, 互相監督’의 方針을 견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또한 대만 동포·홍콩동포·마카오동포·국외의 화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

41) 孫連成, 梁初鴻, 앞의 책, pp.272-278 참조.

42) ‘3대법보’는 통일전선·무장투쟁·黨의 건설 세가지를 말하는데 毛澤東이 한 말이다.

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다.

11) '一國兩制'를 실시하고 조국통일을 완성

현재의 실제상황을 고려해서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국가와 두종류의 제도'(一個國家, 兩種制度)라는 통일방안을 臺灣에 제시했다. 中國은 하나로서 中華人民共和國이 대표하고, 大陸은 사회주의를 실시하며,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자본주의를 실시하도록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1979년 元旦 중국의 全國人民代表大會 黨務委員會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발표, 祖國의 平和的 統一方針을 선포한 바 있다. 즉 "中國의 統一은 人心이 向하는 바이고 大勢의 추세이다". 쌍방이 가능한 빨리 通航·通郵를 실현해서 쌍방의 동포가 직접 접촉하고, 서로 소식을 알리고,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며, 여행과 참관을 하고, 학술·문화·체육·공예를 배우는데 이롭기를 희망한다⁴³⁾고 말하고 있다.

1979년 1월 鄧小平은 美國을 방문했을때 말하길, 다시는 '대만을 해방시킨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臺灣의 현실과 현행제도를 존중하겠다고 표명했다.⁴⁴⁾

1981년 9월 30일 葉劍英은 全人大 黨務委員長 명의로 그 유명한 平和統一의 방침인 '九條建議'를 제시했다. ①공동으로 通郵·通商·通航·여행·학술·문화·체육교류를 위해 편리함을 제공하고, 협의를 달성한다. 국가 통일후 臺灣은 特別行政區로서 고도의 自治權을 향유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中央정부는 地方事務에 간여하지 않는다. ③臺灣의 현행 사회·경제제도 불변, 생활방식 불변,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 불변, 개인재산·건물·토지·기업소유권·합법적 계승권 및 외국투자가 침해받지 않는다. ④대만당국과 각계 대표인사는 전국적인 정치기구의 영도직무를 담

43) 〈人民日報〉, 1979년 1월 1일.

44) 〈人民日報〉, 1979년 2월 1일.

임하거나 국가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⑤대만 각계 인사와 인민을 자유로 왕래할 수 있고 대륙에 정주할 수 있다. ⑥대만 商工界人士의 대륙에의 투자를 환영한다. ⑦조국통일에 모두 책임이 있다 등이다.⁴⁵⁾ 이 九條는 ‘一國兩制’ 구상의 구체화이다.

1984년 이후 ‘一國兩制’의 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1984년 2월 22일 鄧小平은 ‘一個中國，兩種制度’라는 구상을 정식 제기했고 同年 6월 홍콩 商工界 방문관에게 ‘一個國家，兩種制度’의 방법으로 홍콩과 대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⁴⁶⁾ 10월에는 이 이론을 개괄하고 간단히 ‘一國兩制’로⁴⁷⁾ 칭함으로써 이 표현이 정착되었다. 그러면 ‘一國兩制’의 기본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반드시 ‘一個中國’을 견지한다. 즉 中和人民共和國이 中國唯一의 代表이다. 홍콩과 대만은 통일후 中和人民共和國의 구성부분이다. 特別行政區는 기타의 省·市·自治區가 소유하지 못한 特有的 權力을 갖는다. 台灣은 대륙에 위협이 되지 않는한 軍隊를 가질수 있고, 자체의 行政管制權·立法權·司法權을 향유하며 현재의 經濟地位와 外交經濟關係를 보유한다. 行政長官도 當地에서 선거나 협상을 통해 뽑고 中央政府가 임명한다. 外交權은 제외하나 아무튼 高渡의 自治權을 향유하며, 黨·政·軍의 체계도 모두 臺灣이 管理한다. 그러나 이 特別行政區를 하나의 ‘政治實體’로 삼아서는 안되고 ‘完全’한 自治’를 해서도 안되며, ‘一中一臺’나 ‘臺灣獨立’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둘째, ‘兩種制度’가 併存한다. 즉 통일된 中華人民共和國內에서 大陸은 社會主義를 실행하고, 대만·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는 資本主義를 실행한다. 서로 먹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평화공존한다. 셋째,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서 특별행정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주고 이 정책을 장기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⁸⁾

45) 〈人民日報〉, 1981년 10월 1일.

46) 鄧小平, 앞의 책, pp.29-30 참조.

47) 鄧小平, 앞의 책, p.55 참조.

48) 楊建新, 一國兩制度臺灣前途(河北: 華文出版社, 1989), pp.1-17, 75-90 참조; 孫連成, 梁初鴻, 앞의 책, pp.279-291 참조; 趙春義編, 一國兩制個論(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8), pp.1-46 참조.

12)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 견지

중국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결합을 통해서 對外關係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애국주의는 독립자주로 표현되고 국제주의는 反제국주의·反패권주의와 평화공존 5원칙⁴⁹⁾으로 표현된다. 이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기초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일체 국가와의 관계나 일체 공인계급 정당과의 관계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제3세계 국가에 속한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제3세계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근 100개 식민지·반식민지 국가가 투쟁을 통해서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인구와 총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엔의석의 78%를 점하고 있는 강대한 세력이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외개방을 통해 한편으론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대외경제기술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을 끌어들이어 중국의 自力更生の 능력을 증강시키고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에 힘을 경주하고 있다. 아무튼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은 중국이 장기간 견지할 대외 기본방침이다.⁵⁰⁾

13) 黨의 建設

새로운 시기의 黨의 건설은 먼저 思想建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黨員에 대해 黨의 기본노선(‘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을 선전하고, 黨에대한 基本知識을 교육해야 한다. 즉 ①무산계급 정당은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혁명을 하자면 혁명당이 있어야 한다. ②공산당은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표한다. ③당의 최종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

49) 평화공존 5원칙은 1953년 12월 周恩來 首相이 印度政府의 代表團과 담화할때 처음 제창한것으로, ①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②상호불가침, ③상호 내정 불간섭, ④평등호혜, ⑤평화공존이 그것이다.

50) 范若愚 江流主編, 科學社會主義概論—中國社會主義基本問題(北京: 中共中央 黨校出版社, 1983), pp.369-392 참조; 丁禎彥, 앞의 책, pp.370-381 참조; 孫連成, 梁初鴻, 앞의 책, pp.319-334 참조.

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당의 임무는 선국 각 민족의 인민을 단결·영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富強·民主·文明의 사회주의 현대화 強國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당의 이 목표와 임무는 완전히 인민을 위한 것이다. ④당은 민주집중제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黨內民主를 충분히 발양해야 하고, 고도의 민주위에 고도의 集中을 실시해야 한다. ⑤당의 간부는 黨事業의 골간이며 인민의 公僕이다. ⑥무산계급 정당의 근본 기풍은 實查求是와 群衆路線이다. 黨은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고 군중과 밀접하게 연계하며 비평과 자아비평의 우량한 기풍을 발양해야 한다. ⑦단결은 무산계급 정당의 생명이며, 黨事業이 승리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단결은 마르크스주의 원칙의 기초위에서의 단결이다. 그리고 黨의 紀律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당의 기본노선과 당에 대한 기본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단히 당원의 이론수준을 제고시키고, 개혁과 개방중 '새로운 觀念'을 수립해서 黨의 임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선봉전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理想과 도덕과 문화와 기율이있는 모범적인 인간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觀念'이란 무엇이어야 하나?

①生産力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념을 굳건하게 세우고 생산력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新民主主義革命時期에는 '三座大山'⁵¹⁾을 타도하는데 목표가 두어졌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마땅히 生産力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근본임무는 生産力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生産力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떤 아름다운 理想도 모두 空想에 불과할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觀念을 바꾸자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階級鬭爭觀念'을 克服해야 하고 生産力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觀念'을 수립해야 하고, 生産力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51) 3좌대산(三座大山)이란 3개의 큰 산에 비유한 봉건주의·제국주의·관료자본주의를 일컫는다.

②改革·創新의 意識을 굳건히 수립하고 용감한 開拓者가 되어야 한다. 현재 각 社會主義國家의 改革은 이미 불가항력의 潮流가 되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서 思想을 해방하고 대담하게 創新하고 開拓에 용감해야 한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굳어버린, 시대에 뒤떨어진 舊觀念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③실제적인 의식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말을 하며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한다. 共產黨은 唯物主義者이기 때문에 마땅히 일을 처리하는 기반이 事實에 근거해야 한다. 큰소리(大話)·허튼소리(空話)·거짓말(假話)을 배척해야 한다.

④共產黨員은 勞動人民의 普通 一員으로서 人民을 위해 全心全力로 봉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특수한 직위에 있다가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群衆과 함께 생활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群衆의 意見과 要求를 반영해야 하고, 黨의 主張을 群衆에 선전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⑤民主意識을 굳건히 수립하고 民主政治에 앞장서야 한다. 高度의 社會主義民主를 건설하는 것은 政治體制改革의 重要目標이다. 民主가 없으면 社會主義가 없고 社會主義現代化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黨內民主를 충분히 發展시켜야 한다. 黨內民主를 발전시키자면 黨員의 民主意識을 높여야 한다. 民主意識을 높이자면 가장 주요한 것은 黨員의 平等意識을 높여야 한다.

共產黨員의 이상과 같은 觀念의 수립은 改革·開放중 그들의 적극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幹部의 素質을 높여야 하는데 첫째, 黨幹部의 革命化·年輕化(年少化)·知識化·專業化(傳門化)의 '四化'方針을 확립해야 하고 둘째, 黨幹部를 평가하는 문제는 그들의 實績을 보아야 하며 셋째, 각급영도자의 年少化를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것은 黨의 制度化이다. 즉 ①黨의 制度化를 강화해

서 黨內民主와 人民民主를 점차 밀고 나간다. ②黨의 集體領導制度和 民主集中制를 건전히 하되 中央에서부터 시작한다. ③黨內 選舉制度를 改革하고 完備한다. ④黨員의 民主的 權利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조치로서, 새로운 단계에서 새롭게 黨을 再建하자는 것이다.⁵²⁾

14) 4항 기본원칙의 견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4항 기본원칙의 견지는 사회주의 道路의 견지, 인민민주專政(무산계급專政)의 견지, 공산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擇東思想의 견지를 말한다. 이 4항 기본원칙은 유기적으로 연계된 統一體로서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領導的인 力量이자 指導思想이며 그 基本方向과 政權을 保證하고 있다. 그러므로 4항 기본원칙의 견지는 中國의 立國과 治國의 根本이며, 全黨과 全國의 團結統一의 政治的 基礎이고,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건설하는데 있어 根本的인 前提가 되고 있다. 黨11期 3中全會 이래 黨中央은 반복해서 4항 기본원칙을 반드시 견지할것을 강조하고, 4항 기본원칙을 否定하는 資產階級自由化思潮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原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6. 개혁중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오직 改革을 통해서만 경제·정치·문화제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와 모순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社會生産力과 기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엥겔스는 일찌기 1890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소위 ‘社會主義社會’는 한번 성립되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어떤 기타 사회제도와

52) 이상 黨의 建設에 관해서는 中共中央黨校聯合編寫組, 앞의 책, pp.271-319 참조.

마찬가지로 그것도 늘 변하고 개혁하는 社會로 보아야 한다.”⁵³⁾ 레닌도 역시 10월혁명 이후 “만일 체계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국가기관을 改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립되기 전에 멸망될 것”⁵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스탈린은 레닌死後 改革을 하지 않아 기구의 중첩, 黨政不分, 權力集中, 官僚主義, 階級鬭爭의 확대화등 일련의 폐단을 발생시켰으며 自國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바 있다. 中國에서는 社會主義制度의 建立後 상당히 改革을 중시했었다.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 生産關係가 이미 건립되었고, 그것은 生産力の 발전과 서로 적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이 완벽하지 않은 方面들이 生産力の 발전과 또 서로 矛盾된다. 生産關係와 生産力發展의 이런 서로 적응되기도 하고 또 서로 矛盾되기도 하는 狀況이외에, 上部構造와 經濟基礎의 서로 적응하기도 하고 또 서로 矛盾되기도 하는 狀況이 또 있다.”⁵⁵⁾ 또한 동시에, “자산계급 이데올로기의 존재, 국가기구 가운데의 어떤 관료주의 기풍의 존재, 국가제도 가운데의 어느 고리에서의 결합의 존재는 또 사회주의 경제기초와 서로 矛盾되고 있다”⁵⁶⁾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改革思想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鄧小平은 ‘4人幫’을 분쇄한후 改革의 필요성을 전갈하고, 改革은 하나의 革命으로서 體制에 대한 革命을 하지 않으면 4個現代化는 희망이 없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亡黨亡國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⁵⁷⁾

그러면 中國에 존재하는 經濟制度와 政治制度上的 缺陷은 무엇인가?

①경제제도 방면

농업·수공업·자본주의 공상업의 사회주의 改造後期에 그 改造의 속

53) 馬克思恩格斯全集, 第37卷(北京:人民出版社, 1974), p.443.

54) 列寧全集, 第32卷(北京:人民出版社, 1961), p.311.

55) 毛澤東選集, 第5卷(北京:人民出版社, 1977), p.374.

56) 앞의 책.

57) 〈鄧小平文選〉, p.352.

도를 지나치게 빨리했고, 농민의 自留地등은 일률적으로 ‘자본주의 꼬리’라고 하여 잘라버렸다. 그리고 국가의 기업에 대한 통제가 지나쳤고, 이론과 실체가 분리되고, 商品生産・價值規律・市場의 作用을 무시했으며, 分配에 있어 平均主義가 엄중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企業의 自主權 결핍을 조성했고 企業은 國家의 대과반(‘大鍋飯’)을, 직공은 企業의 ‘大鍋飯’을 무조건 퍼먹는 국면을 조성했다. 이렇게 해서 企業과 광대한 職工群衆의 積極性・主動性・創造性을 크게 억눌러 본래 활기차야만 할 사회주의 경제를 위축하게 했다.

② 정치제도 방면

鄧小平이 지적한 바와 같이 “黨과 國家의 領導制度・幹部制度 方面에서 말할때 중요한 폐단은 바로 官僚主義現象, 權力이 지나치게 集中된 現象, 家父長制現象, 幹部領導人의 職務終身制現象 및 가지각색의 特權現象 등이다.”⁵⁸⁾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官僚主義의 주요表現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높이 군림, 권력남용, 실제와 군중에게서 이탈, 듣기 좋은 빈말이나 일삼는 것, 낡은 규칙에 얽매임 생각의 경직성, 일의 처리를 서로 미루기, 효율성이 없다. 신용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복이나 일삼고, 民主의 억압, 위와 아래를 기만하기, 뇌물 받기등 등인데, 이런 현상이 中國의 內部事務와 國際交流面에서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鄧小平이 직접 지적하고 있다.⁵⁹⁾ 權力의 과도한 集中現象으로는, 權力이 개인이나 혹은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어 다수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는 決定權이 없으며, 權力이 있는 소수의 책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필연적으로 官僚主意를 조성하고, 각종 착오를 犯하게 되며 各級의 黨・政府의 民主生活・集體領導・民主集中制・個人分業責任制등에 害를 끼치게 된다.⁶⁰⁾ 家父長制 現象으로는, 개인에게 지나치게 集權되는 現象 외에,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위에 군림케 하고, 조직을 개인의 도구로

58) 〈鄧小平文選〉, p.287.

59) 〈鄧小平文選〉, p.287.

60) 〈鄧小平文選〉, p.289.

만든다. 이렇게 되면 黨內民主나 社會主義 民主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조차 거낼 수 없게 되고 만다.⁶¹⁾ 마지막으로 幹部領導人의 職務終身制 現象의 형성은 封建主義의 영향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幹部의 선거·시험·任免·탄핵·교체제도를 건전하게 해야 하고, 各級各類的 領導幹部의 任期에 대해 명확한 規定을 두어 無期限의인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⁶²⁾ 그러므로 現行制度中の 병폐는 改革하지 않으면 黨과 社會主義에 대한 信任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③ 思想文化 方面

진일보 封建主義와 資產階級思想의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근년에 對外 開放으로 인해 불건전한 思想이나 生活方式이 들어와 外國을 숭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改革은 社會主義制度를 동요시키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 자체의 기초 위에서의 自我改造와 自我改善이다. 이 改造와 改善은 黨과 國家의 領導下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思想의 引渡下에, 社會主義制度 자체의 力量에 의지하고, 수억 人民의 실천에 의존해서 自黨의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改革·改善을 통해 社會主義의 基本制度를 날로 鞏固히 하고 發展시켜서 社會生産力을 순조롭게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生産關係와 上部構造의 改革은 순조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소급하는 면은 매우 넓으며, 수많은 사람의 절실한 利益에 소급되고 있어, 반드시 각종의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출현시킬 것이고, 반드시 엄중한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⁶³⁾ 그러므로 共產黨의 領導下에 社會主義 初級段階인 現狀況을 基礎로 해서 萬難을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改革을 成功시켜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를 반드시 建設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61) 〈鄧小平文選〉, p.291.

62) 〈鄧小平選集〉, p.291.

63) 〈鄧小平文選〉, p.142.

7. 결론—종합과 평가

19c 중엽 蒸氣化에 의한 기계공업이 건립된지 얼마 안되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共產黨宣言〉에서 선포하길, 생산력은 이미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에 까지 발전했고, 자본주의는 노쇠했으며 사회주의가 임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줄곧 믿어왔다. 그러나 현재 바라보건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현대 자본주의는 아직도 크게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제 역사무대에서 퇴출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현금의 사회주의는 모두 생산력이 비교적 낙후한 국가에서 실현되었으며, 마르크스가 그 당시 생각했던 영국이나 미국등의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현된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중화인민공화국은 半殖民地·半封建社會의 기초위에서 탄생했기때문에 자본주의의 충분한 발전단계도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러므로 비록 40년간의 건설로 거대한 성취가 있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해있는 것이다. 즉 生産力 수준과 생산의 상품화정도, 사회화정도가 모두 매우 낮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초위에서 건립된 사회주의 경제기초와 상부구조도 성숙되지 못했고 완전하지도 못했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사회주의 사회에 들어섰다고 해서 곧장 공산주의의 大門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련이나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드시 사회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社會制度로서 그 발생·발전·성숙에는 비교적 상당히 긴 역사과정이 필요하며, 몇십년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그 생산력 수준등으로 볼때 社會主義의 初級段階에 처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社會主義 初級段階理論이 바로 中國이 건설하고자하는 中國特色的 社會主義의 첫째가는 前提가 되고 있다. 이는 오랜 실

천을 통해 얻은 中國國情에 대한 '再認識'의 결과인 것이다. 이 中國國情(社會主義의 初級段階)에 기초하고, 마르크스主義의 보편적 原理의 指導를 받아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를 建設하자는 것이 中國共產黨 第13期 全國代表大會에서의 觀點이요 決點이다. 따라서 中國의 實際에서 출발하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中國이 처한 社會의 歷史段階에 대한 認識이야말로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를 건설하는데에 정확한 路線·方針·政策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근본적인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社會主義 初級段階理論은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建設의 基礎가 되고 있으며,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建設의 '內容'을 決定하고 있다. 이 '內容'은 黨第11期 3中全會 이래 中國社會主義가 처한 狀況에 대한 再認識過程中 점차 형성된 것이다. 즉 ①思想解放·實事求是·實踐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관점 ②社會主義建設은 반드시 本國國情에 근거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관점 ③경제·문화가 낙후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하나의 매우 긴 初級段階가 있게 마련이라는 관점 ④사회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임무는 生産力을 발전시키고, 力量을 집중시켜서 現代化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관점 ⑤사회주의 경제는 계획성있는 商品經濟라는 관점 ⑥改革은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고, 對外開放은 社會主義 現代化를 실현하는 必要條件이라는 관점 ⑦社會主義 民主政治와 社會主義 精神文明은 社會主義의 중요한 特徵이라는 관점 ⑧四項의 基本原則 견지와 改革·開放의 總方針 견지라는 이 두가지 基本店은 상호 결합되어 있어 어느 한가지도 부족해서는 안된다는 관점 ⑨'一個國家, 兩種制度'를 사용해서 國家統一을 실현하자는 관점 ⑩집권당의 黨風은 黨의 生産存亡에 관계가 있다는 관점 ⑪獨立自主·完全平等·相互尊重·相互內政 不干涉의 原則에 의거, 外國共產黨과 기타 政黨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관점 ⑫平和와 發展은 當大世界의 主題라는 관점 등등이 그것이다. 이 內容은 이미 앞에서 대체로 밝힌바 있고, 哲學·政治經濟學·科學社會主義等 堤防面에서 다른 理論들로서,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建設의 段階·任務·動力·條件·國際環境等에 대해 초보적으로答한 것이다. 이 內容 즉 答은 社會主義의 不斷한 實踐과 이에 대한 認識, 再實踐과 再認識의 복잡한 過程中에서 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鄧小平은 中國共產黨은 代表하여 11억의 人口와 낙후한 國情下에서, 毛擇東思想의 精髓라는 ‘實事求是’에 근거해서 中國國情을 바르게 再認識하고, 이에 基礎해서 改革과 開放을 포함한 여러 政策을 實踐해오고 있다. 또 이 過程에서 발생하기 쉬운 ‘四項基本原則’에 반대하는 소위 ‘資產階級自由化’라는 汚染의 방지를 위해서도 思想建設(社會主義 精神文明建設)에 힘쓰고 있다. 이와함께 鄧小平은 黨을 새로이 整備하고, ‘一國兩制’라는 새로운 國家統一方案을 내놓아 中國實際에 가장 적합하다는 ‘中國特色의 社會主義建設’ 內容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아무튼 鄧小平의 지난 10년간 主導하고 있는 ‘中國特色의 社會主義建設’이라는 戰略은 이제 흔들일 수 없는 長期的인 國策이 되었으며 中國全體人民은 갈수록 이 國策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큰 成果를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웃 中國人民이 國家發展을 위해 上下가 얼마나 思想的인 面에서나 實踐的인 面에서 奮闘하고 있는가를 痛感하고, 이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 자신도 民主的 大改革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물론, 對中國政策에서도 現中國의 國策을 洞察해서 우리의 思想的·政治的·經濟的 政策을 長期的으로 올바르게 세워 對應해 나감으로써 平等互利·平等共存·相互繁榮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도 서

1. 馬克思恩格斯選集, 第1·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5.
2. 馬克思恩格斯全集, 第23·3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4.
3. 列寧選集, 第1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5.

4. 列寧全集, 第23·32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1.
5. 毛澤東選集, 第5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7.
6. 中國毛澤東思想理論與實踐研究會理事會編, 毛澤東思想辭典, 北京: 人民出版社, 1990.
7. 鄧小平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83.
8.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增訂本), 北京: 人民出版社, 1987.
9. 金羽, 陳先奎等, 當代中國大思路—鄧小平的理論與實踐, 北京: 人民出版社, 1989.
10. 吳振坤, 臧志風, 三中全會以來我國社會主義經濟建設的基本方針和政策,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84.
11. 中共中央黨校黨史教研室資料組編寫, 中國共產黨歷史重要會議集(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12. 孫連成, 梁初鴻, 中國特色的 社會主義研究,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7.
13. 丁禎彥等主編, 中國特色社會主義概論, 南寧: 陝西教育出版社, 1988.
14. 楊建新, 一國兩制與臺灣全度, 河北: 華文出版社, 1989.
15. 趙春義編, 一國兩制概論,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8.
16. 范若愚, 江流主編, 科學社會主義概論—中國社會主義基本問題,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3.
17. 1988 中國經濟年鑑,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88.
18. 夏征農主編, 社會主義辭典,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985.
19. 檀國大學校中國問題研究所, 中國, 第15卷, 1990년 12월.
20. 人民日報.